

1. 플로로그,

100세 어머니의 노아의 방주 속에서 찾아낸 참깨

많은 사람이 묻는다. 어떻게 씨앗을 가지고 박물관을 설립할 생각을 했느냐고 묻는다. 나는 으레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농업이란 직업은 내게 징그럽다는 현실적 고충과 그나마 살게 해줬다는 고맙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농업은 한 번도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지도 못했고, 때론 빚더미에 싸여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평생 농사를 통해서 자식을 가르치고, 부모를 봉양하는 등 우리 식구가 먹고살았다는 데 대한 고마움이 동시에 존재했는데, 이는 또한 늘 항상 부채감으로 남아있었다. 첫 번째 이유로 기회만 생기면 농업을 은퇴하기로 결심했고, 어느 날 그 기회가 드디어 바람처럼 찾아왔다. 두 번째 이유로 농사를 은퇴하고 그 부채감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한 것이 바로 씨앗 박물관이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다. 내가 농사를 은퇴하기 훨씬 전 이야기다.

어느 날, 문득 엄니가 창문 앞에서 턱을 괴고 처연히 밖을 내다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것이 뭐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웬일인지 그날은 틀니까지 빼놓고 있으니 모습이 더욱 근심스러워 보였다. 빠진 틀니 때문에 하관으로 흘러내린 주름이 더욱더 깊었다.

밖에는 긴 장마가 끝이 났는데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우기가 생겼다고 떠들어댈 만큼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벌써 사흘째다. 가끔 햇살이 비추긴 했지만 오랜 비에 햇빛마저 젖어 있는 듯해 엄니의 걱정을 말리진 못했다. 읍내와 경계를 이루는 여우봉 계곡을 따라 흐름이 빠른 죽곡천 지류의 장맛물이 불어났다 빠졌다 하기를 반복하며 방천이 무너져 축사까지 밀고 들어오는 거센 기세도 엄니의 걱정을 덮지 못했다. 나는 그때 한우를 기르고 있었다.

아내의 부탁으로 겸정깨를 심어놓고 내내 걱정하는 것이었다. 깨를 털어야 하는 데 틈을 주지 않고 내린 비 때문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이다. 밖에서는 논두렁이 터지고 축사로 물이 들어와 아침도 먹지 못하고 정신없이 일하다 들어와도 한마디 걱정이 없었고 엄니의 관심사는 오직 겸정깨 걱정뿐이었다. 우리와는 그 종묘로움과 집착이 서로 달랐다.

엄니가 미수를 넘겼어도 건강하신 것은 우리 부부에겐 행운이었다. 너무 총기 있게 늙으신 것도 행운이었다. 그러나 모든 부모가 그렇다지만, 집안 관심에 대한 엄니의 자만심은 도를 넘었다. 씨 뿌리고 거두는 일, 논갈이, 농작물에 대한 절기 관리, 병충해 관리, 심지어 손주 교육부터 축사 관리하는 것까지 엄니의 경험이 우리를 지배하곤 했다.

그런 엄니의 손발을 묶은 것은 바로 아내였다. 본래는 작년부터 엄니에게 아무 일도 못 하게 하자는 계획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계획이 다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때 우리는 농업을 은퇴하고 농사를 짓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농업을 은퇴한다는 것이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농사꾼도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그 어떤 직종보다도 치열하게 살았으면 적당한 나이에 은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그것을 준비 하던 중이었다.

그동안 농업이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생계보다는 농사라는 본연과 근본에 치중하며 살자는 계획이었다. 슬로푸드 운동하는 아내에게는 늘 제초제 치고 농약 치는 관행 농업을 하던 나와 엄니가 걸렸다. 나야 이제 농업을 은퇴하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됐지만, 그런 계획을 실행하려면 엄니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엄니에게 제초제는 신이 내린 약이었다. 매일 밭두렁을 타다 보면 무릎과 허리가 성할 날이 없었고, 밭의 풀을 잡을 만하면 새우질빵이 온 논을 뒤엎어 버렸다. 논매는 기계가 나왔다지만, 아버지가 밀고 가는 기계는 첨병대며 흙탕물만 일으켜 임시로 풀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으니 그 뒷일은 모두 엄니가 감당해야 했다. 잡초라는 놈은 가물면 뿌리가 깊어 뽑기 어렵고, 장마에는 잎이 성해 하루에도 한 자 이상 뻗어 올라가니 모두 엄니 손끝의 호미나 낫이 감당해야 했는데, 어여차, 제초제가 나왔더라! 그때 느낀 흥분은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계신다.

그런 엄니를 말린다는 것은 언감생심이었다. 평생 얹매여 살던 엄니를 단시간에 해방시킨 것은 제초제 말고는 유사 아래 단 한 번도 없었다. 하다못해 그렇게 지독하다던 왜놈 세상에서 해방이 됐어도 엄니가 가지고 있던 속박을 다 풀어내지는 못했다.

굽기야 아내는 엄니를 이해시키는 것보다 엄니의 관심을 끌어버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엄니가 다가오는 시월이면 구순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평계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엄니가 젊은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고, 걱정거리가 다르고, 깜냥이 다르고, 두량이 다르다 보니 늘 우리가 하는 일에는 걱정이 앞설 뿐 아니라 그 걱정을 득지기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시는데, 그게 싫었던 게 더 중요한 이유였다. 물론 엄니의 반발이 예상외로 심했지만, 이제는 며느리의 고집을 꺾을 나이는 지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다. 바로 얼마 전까지 그랬다.

그러나 그렇게 간신히 놓게 한 엄니의 일손을 다시 불러들인 것도 바로 아내였다. 소문이 문제였다. 마을 어느 댁에서 대대로 심다 보니 좋은 토종 검정깨를 건졌다고 여기저기서 난리인데 아내도 그것을 심어야겠다고 엄니를 끌어들였다. 엄니의 성격을 간과한 것이었다.

처음엔 나한테 부탁했지만 바쁘다는 평계로 밭갈이 정도만 내가 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농사를 지었지만, 잡곡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심고 가꾸어야 하는지는 솔직히 나도 잘 몰랐으니 엄니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엄니에게 미루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또 일을 잡게 하는 것이 께름칙했지만.

- 엄니, 이게 정말 마지막이여!

그러나 소가 풀 뜯지 않으마 하는 콧방귀같이 웃기지도 않는 마지막이라는 단서를 붙여 검정깨를 심어달라는 거였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일임해버렸다. 엄니는 일을 찾았고, 대신 아내는 검정깨를 얻을 수 있는 원원 협상이 이뤄진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심은 검정깨가 너무 잘 자랐다. 엄니는 참깨 종자가 좋은 게 걸렸다고 무척 좋아하셨다. 씨가 키도 적당했고, 땅의 거름도 적당했다. 아내가 반대도 했지만 처음 심는 땅이니 굳이 몰래 농약도 칠 필요가 없었다. 아내가 엄니에게 양보한 최소한의 땅에 본보기라도 보일 듯이 엄니의 정성은 최고로 다 했다.

- 이란 말여, 산짐승이 손 노코 살 수 있남. 네발 달린 짐승은 인육 사타구니를 디져서도 지새끼 맥여 살리려고 쏘다녀야 허구, 두 발 달린 이녁들은 손가락을 팔 수 있으면 땅떼기를 파야 허는겨. 땅떼기를 놀리믄 별 받지. 땅이 우리 목심 줄이지, 목심 줄. 일 노면 죽어야지. 일해야 산 목심이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목심이나 매찬가지여.

사실은 그보다 아들한테 맡겨놓은 뒤로 풀만 무성하던 텃밭에 모처럼 작물이 자라니 그동안 에미의 일손을 뚫어버린 너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라는 듯했다. 의기양양했다. 우리 부부는 가끔 엄니의 그 의기양양함이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설마 했다.

몇 대째 대대로 심어온 검정깨였다. 그런데 이번에 엄니는 그 씨종자를 해도 좋을 만큼 실하고 모범적인 깨를 열리게 했다. 이미 그것을 보기 위해 벌써 동네 할머니들도 몇 차례 다녀갔

다. 엄니의 의기양양으로 봐서는 족히 서너 말은 거둘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엄니의 일솜씨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일을 끊은 아내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시위였다. 물론 사람들이 감탄했다. 엄니의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아뿔싸! 장마만 그대로 끝났으면 괜찮았는데 엄니 말대로 ‘시어머니 죽자 시누이가 지랄’이라고 장마가 끝나자 그동안 없었던 우기라는 놈이 온 것이다. 하필 그 우기 통에 검정깨가 익어버려서 다 쏟아지고 말았다. 설령 남아있는 놈이 있더라도 썩기 일보 직전이었다. 엄니는 터지는 속을 끌어안고 가끔 젖은 햇빛이나마 비죽 내밀 때 깨를 털어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마저 쓸모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였다.

그날 아침, 엄니의 의기양양함이 빼버린 틀니의 함몰된 하관으로 빠져버렸다. 근심이 눈까지도 처지게 한 것이었다.

아내야 허탈하지만 그래도 초연했다. 안 먹으면 되지 뭐, 하는 태도였다. 쓸데없는 근심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다. 특히 아침 내내 하필 틀니까지 빼놓고 창가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엄니에게 한마디 했다.

“내가 어머니보고 심으라는 게 잘못이지. 괜히 생 근심 만들어 버렸네.”

아! 간신히 찾은 엄니의 일손이 날아가 버린 순간이었다.

순간, 엄니는 아내의 뒤통수를 향해 주먹손을 텔더니 그동안의 근심에서 벗어나 틀니 빠진 입술을 다부지게 옮매고,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얼마 안 가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다.

거실에 헌 신문지를 갈고 소창을 피더니 썩어가는 깨를 쏟아부었다. 다 썩은 깨를 털고, 또 털고. 체로 가리고, 돌보기까지 동원하며 가리고 또 가리기를 두어 시간, 드디어 엄니가 만들 어낸 것은 한 조막만큼의 검정깨였다. 한 되 남짓한 썩은 참깨에서 조막만큼의 알 속 깨를 가려내었다.

그걸 만드느라 두어 시간을 소비하고, 아내의 눈총을 받았던 것이었다. 늘 엄니 편만 든다고 편안받던 나도 기막힐 일이었는데, 옆에서 지켜본 아내야 오죽했겠느냐만 그러나 이 깨는 아내 몫은 아니었다.

보기 좋게 한 방 맞은 거는 아내였다. 그걸 아내한테 당연히 주려니 생각했다. 혹시 무슨 말을 들을까 봐 옆에서 지켜본 나도 조마조마했는데 엄니는 그것을 가지고 당신 방으로 가는 거였다.

으아! 어이없을 수밖에.

우리는 궁금해서 엄니를 쫓아 방으로 갔다. 엄니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더니 아주 깊이 그리고 조심스럽게 놔두고는 그제야 흐뭇해하며 하관의 주름을 폈다.

우리는 그날에야 비로소 평소에 무심히 넘겼던 엄니의 낡은 서랍장의 맨 아래 서랍을 봤다. 이 서랍장은 아내가 시집올 때 혼수로 사온 것이었는데 낡아서 버리자고 했을 때 아깝다며 엄니 방으로 옮겨 놓은 것이었다. 맨 위 서랍에는 엄니의 약들이 주로 있었다. 위장약, 신경통약, 관절 약, 육도정기 빨간 약, 호랑이 고약과 엄니가 좋다고 들어온 온갖 민간요법의 약들, 벌써 사온 지가 1년이 지난 영양제도 있는데 그것은 손주가 사온 것이라 아껴먹는 중이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옷가지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비로소 난 엄니의 하루 일과를 볼 수 있었다.

그곳에는 무엇인가 여러 뭉치가 쌓여 있었다. 차곡차곡 빨간 양파 망사에 싸여 있었다. 자세히 보니 온갖 씨앗들이었다. 호박씨, 단호박씨, 오이씨, 토마토, 상추, 수수, 옥수수, 배추 등

등 봄에 받은 씨부터 가을에 심을 종자들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심지어 재래종 졸은 약봉지 접듯이 접힌 창호지에 쌓여 있기도 했다. 엄니 나름대로 중요하단 표시를 해둔 것이었다.

앗, 노아의 방주다! 우리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엄니의 서랍 속에는 빨간 망사로 된 작은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 밭은 뺏기고 손발이 묶였지만, 그곳에는 바로 내년에 쪽 밭을 내어 심을 씨앗이 들어 있었던 것이었다.

엄니는 언제 심을지 모를 그 검정 참깨를 털어 두어 시간을 만져 이 노아의 방주에 넣는 것이었다.

- 는 노치지 말어야지. 너두 이제 나 죽으면 이 하찮은 봉지만 보면 생각날 거다. 뒀다 써먹어 임.

엄니, 그제야 아내 앞에서 다시 의기양양함을 되찾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것은 졸고 있던 내 어깻죽지를 내리치는 죽비소리였다.

이것이 2014년이었으니, 우리는 그 뒤 2016년, 엄니의 낡은 서랍 속 노아의 방주에서 지혜를 얻어 토종을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닌 지 3년, 그때 세운 것이 지금의 한국토종씨앗박물관이다.

엄니는 2022년 향년 104세에 다다른 따뜻한 봄날, 소원대로 자식들 품에서 돌아가셨다. 지금도 박물관에 들어서면 늙은 자식의 때아닌 그리움이 솟구쳐 울컥하지만, 이 책을 어머니의 영전에 바쳐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2022년 겨울 몽소재에서